'NS쿡페스트 익산' 막바지 점검

국내최대요리경연, 식품산업메카 위상 높여… 지역 특산품관광연계 확대

익산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내 최대 요리경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익산시와 하림그룹 유통 전문기업 NS홈쇼핑과 공동 주최하는 '2022 NS쿡페스트'가 올해 처음 20일 익산 제4산업단지에 위치한 '하림산업' 기업 내에서 개최된다.

시는 지난 7일 오택림 부시장 주재로 행정지원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부서별 시설지원, 행정지원, 홍보 등 추진상황과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시는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가 주제인 만큼 국내 대표 '농식품 메카이자 식품 수도인 익산'과 '글로벌 푸드&농식품 기업인 하림'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위상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는 총상금 1억원 상당을 향한 본선 진출자 100팀이 원할하게 요리경연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점검했다. 또한 하림공장 투어, 청춘버스킹, KT인공지능로봇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오는 14일에는 행사 현장점검 및 최종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 하림 정호석 대표이사, 하림산업 허준 대표이사, 익산시청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이 참석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 전 최종 확인 단계를 가진다.

한편 하림공장 투어는 시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익산시 SN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투어 완료자는 하림의 대표 브랜드인 '더미식'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사에 지역 특산품 홍보와 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익산에서 대를 이어 내려온 대물림 맛집 시식부스, 하림 브랜드 시식 및 판매부스, 청년공유주방, 청년농부마켓 등 다양한 홍보부스가 설치·운영한다. 이외 잔디에서 즐기는 미식라운지와 국화축제와 연계한 야외정원도 구성할 예정이다.

오택림 익산부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각 부서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NS 쿡페스트가 익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기자

"다양한 편의 기능 탑재 방안 모색"

익산시의회, '다이로움 카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화폐 연구회(대표의원 장경호)'가 11일, 모현시립도서관에서 다이로움 카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원들과 익산시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상준 책임연구원, 전주대학교 손현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용역과제의 세부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동안 다이로움 카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힘써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장경호 의원은 "다이로움 카드 회원수가 19만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큰 상황이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다이로움 카드와 익산시 시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좀 더 다양한 편의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연구회는 장경호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강경숙 의원, 오임선 의원, 박철원 의원, 김경진 의원, 유재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11월말까지 익산시 지역화폐(다이로움 카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푸드플랜', 먹거리체계 시민역량 집결

익산시가 시민역량을 집결해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익산푸드플랜' 구체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익산먹거리연대,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상생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시민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소비자,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학교급식 참여업체 등 다양한 먹거리 이해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해 익산시 푸드플랜의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상호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원광대학교 김흥주 교수는 '먹거리 시민 위원회 활성화 방향' 주제강연을 통해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조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푸드플랜 정책방향과 추진 주체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김영재 익산농민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생산자대표,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위원장, 영양교사, 학교급식 공급업체 대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등 각 분야에서 7인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해 익산시 먹거리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 신흥동·옥산면 전시

군산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센터장 박성신, 군산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우리동네 아카이브 : 신흥동과 옥산면' 전시가 오는 30일까지 구)남조선전기사옥에서 개최된다.

'우리동네 아카이브 : 신흥동과 옥산면' 전시는 2022년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시범지역인 신흥동과 옥산면의 모습을 기록한 전시다. 군산 원도심 외곽지역 주민의 마을살이와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주민들의 일상을 만나볼 수 있다.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기종 작가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재 작가가 각각 내지인과 외지인의 감정과 시선을 교차하며 신흥동과 옥산면 주민의 삶과 정서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이번 전시는 군산의 대표적인 설치미술가인 강용면 작가와 김병철 작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션룸에서는 군산대 오원환 교수가 연출한 도시재생사업의 기록을 담은 '군산의 기억', 옥산면 주민들의 삶을 기록한 '옥산면 사람들' 다큐멘터리 영상도 상영된다. 그 외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의 진행 과정도 함께 전시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고용특성 반영 일자리패러다임 바꾼다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8개 민관학 일자리거버넌스 협력

익산시가 관내 제조업 고용 특성을 연계한 유형별,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새롭게 디자인할 계획이다.

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8개 민관학 일자리거버넌스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기관은 익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익산상공회의소, 익산시 고용안정일자리센터,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8곳으로 익산시 일자리정책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용역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관내 전체 제조업체에 대한 산업통계와 심층 실태조사를 토대로 익산시 고용특성을 정부고용 정책과 연계해 익산시만의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용역 전과정에 민관학 일자리거버넌스 기관과 일자리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우선 유형별 산업별 일자리 맞춤 지원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신중년층 증가와 청년 유입을 위한 대상별 지원정책과 익산시 인구 36%에 달하는 10만여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적극적 경제참여를 유도하는 활력 사업 추진을 전략으로 내세웠다. 식료품·그린바이오 제조업, 신산업 분야 등 산업별 일자리 수요맞춤 지원을 중점추진 과제로 꼽았다.

익산의 주력산업군인 식품제조업을 특화한 생명소재 산업화의 투자전략으로 식품바이오 잡(JOB)매칭사업안을 선보이는 등 산업특성에 따른 세부사업도 제시했다.

특히 '고용부, 지역형 PLUS 일자리사업'과 '중기부,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 정부 일자리 정책사업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칭) 익산시 다이로움 일자리종합센터'를 구축해 지역특성 반영한 고도화된 원스톱 토탈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익산 일자리 정책지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분야별로 의미있는 일자리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시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타당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여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일자리사업을 빠르게 선점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일자리정책 수립 용역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익산시만의 고유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통해 안정된 고용, 좋은 일자리가 함께하는 활력 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2022년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생 40명 선발

군산시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체 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중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장학생 40명을 선발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서,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 일자리정책과에 1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정책과(454-43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안전취약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군산시 안전총괄과는 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경보형 감지기) 약 1,500여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군산소방서는 지난 9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등 약 1만5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해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시, 군산소방서,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원들과 합동으로 안전취약계층 세대에 직접방문 및 설치하며, 소화기 작동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 화재발생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망자 발생 화재의 절반가량이 일반주택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뿐 아니라 작동방법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